

2025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5.9.30.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8/10	3	2	13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김욱 위원장, 이섭교 위원, 정성일 위원, 백강희 위원,
문선혜 위원, 박은숙 위원, 이현욱 위원, 최승인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 경영진 외 : 김윤미 취재편집부장,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4	2	-	2	8	-	8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8	-	-	8

다. 전월(8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사랑의 집 고치기 관련 보도> '사랑의 집 고치기' 보도를 할 때 집이 그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보도만 할 게 아니라 그 선정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시면 진정성이 잘 느껴질 것 같음.	사랑의 집 고치기 보도 관련해서는 앞으로 비포맷애프터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과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도 뉴스에 담도록 하겠음. <25. 9월 조치>	'25.8월
보도	<폭염 기획 보도 > 7월에 방송했던 폭염 기획보도가 인상적이었는데 8월에는 한건이었음. 예산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소진된 것인지 궁금함	예산 지원은 '팩트체크' 기획뉴스에 해당되고 폭염뉴스는 자체 기획으로 제작한 것인데 지속성 면에서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음. <25. 8월 조치>	'25.8월
보도	<후속 보도 관련> 김충현 사망 후속 보도 및 한화생명 불파크 시설, 빅스트클럽 보도건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오늘도 빅스트클럽 관련 대덕구 심사 미비점에 대해 후속 보도 예정임 <25. 9월 조치>	김충현 사망 관련 보도, 한화생명 불파크 시설, 빅스트클럽 보도건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오늘도 빅스트클럽 관련 대덕구 심사 미비점에 대해 후속 보도 예정임 <25. 9월 조치>	'25.8월
보도	<시청자게시판 제보 관련 보도> 전기자전거 동물 학대 문제 제보가 시청자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보도로 이어진 것은 좋아보였음. 이 보도가 어떻게 제작된 건지 궁금함	전기자전거 동물학대 제보는 대전MBC뉴스 카카오톡 제보 채널을 통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대응문제 등 종합적으로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25. 8월 조치>	'25.8월
교양	<광복80주년 주제 관련> 시시각각에서 광복80주년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방송했지만 독립정신 계승이라는 소주제에 국한되어 있고 패널 구성도 같은 관점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아쉬웠음	지난 8월15일 이전부터 뉴라이트 논란과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한 김형석 관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시작되면서 그 이슈에 초점을 맞춰 패널 구성을 하게 된 것임. <25. 8월 조치>	'25.8월
교양	<방송 분량 관련> 청소년을 주 타깃으로 하는 방송의 경우 50분물은 좀 길어 보이는데 시즌2가 가능하다면 디지털 콘텐츠처럼 20분을 넘지 않게 편성해보면 어떨지?	유튜브 전담부서에서 해당프로그램에 대한 쇼츠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음. 시즌2에서는 분량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보겠음 <추후 조치>	'25.8월
기타	<제작환경 개선 관련> 제한된 제작환경만으로 지역방송에 대한 한계를 이해시키기 보다는 예산확보와 투자 등 그걸 뛰어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임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 자체적으로도 노력하겠고, 지역 방송사를 전체가 연합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음 <25. 9월 조치>	'25.8월
기타	<공익사업 참여 관련> 사랑의 집 고치기 보도를 보면서 이런 공익적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음.	사랑의 집 고치기는 전문건설협회 세종총남도회와 20년째 진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인데 위원님을 여건을 고려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음. <추후 조치>	'25.8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5년 9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임기)
위원장	김 옥	배재대학교 총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문화단체	25.5.1~27.4.30
부위원장	백강희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가족센터 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5.1~26.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5.1~26.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총보팀장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5.1~26.4.30
위원	문선혜	전앤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5.5.1~27.4.30
위원	박은숙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대표	원도심문화예술인행동	문화단체	25.5.1~27.4.30
위원	이현욱	우송대 글로벌미디어학과 교수	한국영화교육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최승인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장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소외계층대변	25.5.1~27.4.30
위원	조원희	(주)지라지교시큐리티 대표이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	25.5.1~27.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충청권 출생률 관련 보도> 충청권의 출생률과 혼인을 증가와 세종시 인구 감소 보도 관련해서 수치만 나열할 뿐 전문가들의 의견과 심층적인 분석이 없어서 아쉬웠음.	회의록 첨부	○		
보도	<뉴스 배경 멀티비전 LED 관련> 뉴스를 보면서 앵커는 깔끔하게 보이는데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멀티비전의 영상 해상도가 떨어져 기능이 노후화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음	회의록 첨부	○		
보도	<지역 현안 관련 보도> 지천명과 독립기념관 관장 등 우리 지역의 이슈 보도를 잘 담당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카이스트 석학 중국 이전 관련 보도> 중국 이적 문제를 보도하면서 국부 유출 중에 하나로 중요한 문제라고 했는데 단순히 제도적 관점이 아닌 더 깊게 심층적으로 바라보길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시각각 주제 관련> 올해가 선거철이다 보니 시시각각 38회 방송분 중에서 절반이 선거와 정치 이슈였는데 더 폭넓게 다양한 지역 이슈들을 다뤄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오늘M - 현월 관련 인터뷰 > 현월이 소중한 생명을 이어준다는 콘셉트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인터뷰 내용들(봉사시간, 승진, 초코파이 등)이 너무 가볍게 포장된 것 같음	회의록 첨부	○		
기타	<신규 프로 홈페이지 업로드> <애들은 가라 1호점> 프로그램을 흥미롭게 봤음. 다만 유튜브에는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대전MBC 홈페이지에는 아직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아 아쉬웠음	회의록 첨부	○		
기타	<뉴스 앵커 표정 관련> 화재나 고독사 보도 관련해서 앵커가 뉴스 내용을 전달할 때 사안의 중대함에 비해서 앵커의 표정이 밝아서 어울리지 않았음	회의록 첨부	○		

2025년 9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5년 9월 30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8명)
김옥 위원장,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백강희 위원,
문선혜 위원, 박은숙 위원, 이현욱 위원, 최승인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5명)
진종재 사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윤미 취재편집부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경영국장

오늘 회의는 위원님 10분 중에 8분이 오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전략기획실장, 보도국장, 인프라국장이 개인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도국은 김윤미 취재편집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회의 이후에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안건은 모두 11건입니다. 출연자에 대한 불만이 1건, 기타 요청 및 문의가 10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한번 봐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위원

야구 중계 관련해서는 캐스터, 해설위원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임세혁 편성국장

공중파 방송의 해설위원이 아니라 유튜브 입중계를 말하는데요. ‘아빠는 한화팬’이라는 유튜브를 저희가 유튜브 입중계 해설자로 모셨는데 그분이 저희 채널이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는 개인 채널에서 이 얘기를 해서 화가 난 LG팬이 저희 게시판에 유튜브 해설로 이 사람을 쓰는 게 맞느냐고 올린 건데요. 저희가 조심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2025년 9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진

종재 사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지난주에 창사 6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자축도 하면서 저희 위치를 다시 한 번 구성원들끼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계속 방송되고 있는데 <오지랖 보건설>은 종료가 됐고 지난주에 PD들이 더운 여름에 제작하느라 고생한 <애들은 가라>라는 프로그램 방송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공익적 성격의 행사인 창작동요제도 지난주에 방송을 끝냈고요. 매년 진행되는 한화그룹과 같이 하는 <한빛대상>도 수상 대상자들을 확정했습니다. 시상식은 조만간 제작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번 소개해 드렸던 우리나라의 매운 맛을 주제로 하는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세계 각지를 제작진이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했는데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정규프로그램과 더불어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번에는 시청자위원을 대표해서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오늘도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가 창사 61주년이었는데 축하드리고요.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계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최승인 위원님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인 위원

9월 26일 방영된 <뉴스투데이>에 충청권의 출생률, 혼인율은 증가했고, 세종만 인구가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통계청 발표에 의한 인구 동향을 보도하셨는데요. 보도 자체가 충청권 출생아 수라든지 혼인 건수가 증가했다는 긍정적 통계를 간략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자료 출처 외에 추가적인 해석과 분석, 그리고 전문가 의견들이 부족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의 이해와 공감,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고, 지역별로 출산 결혼 장려 정책과 경제적 변화, 인프라 개선 등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하고, 단순한 수치를 나열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대전의 혼인이 급증했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적 배경이 있었는지, 증가됐던 부분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 때문인지 부가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세종 같은 경우는 출생아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한 원인이 분석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도 없기 때문에 전문가나 시민 당사자의 인터뷰가 있었으면 보도 내용을 좀 더 뒷받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9월 25일, 26일 뉴스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에는 추석 차례상 준비 가격이 대형 마트보다 전통시장이 20%가량 저렴하다는 내용만 보도가 됐고, 26일에는 열흘간 79건이 적발돼서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둔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됐습니다. 9월 25일 뉴스 보도 이면에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을 담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다음날인 26일에는 선물용품이나 제수용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산지 표시가 위반되고 관련된 부정 유통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자료 화면으로 대부분 재래시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칫 이 부분이 재래시장을 오히려 악화시키거나 유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줄 수 있는 이중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 질서 위반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마트나 다른 단체에도 모두 해당된다면 향후에는 이런 이중적인 보도보다는 차라리 한가위를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게 부정 유통, 원산지 위반에 대한 과거 사례들을 선제적으로 보도해 주시면 소비자들이 마음껏 장을 볼 수 있게 장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9월 17일 <오늘M> 기적을 나누는 병원 헌혈차 부분이 있습니다. 헌혈이 값진 나눔이고, 작은 생명으로 소중한 생명을 이어준다는 콘셉트로 헌혈을 장려하려는 의도로 충남에 있는 한 대학교의 혈액원차와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혈이 가능한 인구는 전체 인구수에 따라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헌혈이 필요한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리포터가 유쾌하게 진행을 잘 풀어 가시면서 다양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중간에 인터뷰 내용을 보면 혈액원 직원분께 “몇 번의 헌혈을 하셨나요? 학생 때보다 오히려 지금 혈액원을 다니면서 더 많이 하지 않으신가요?”라고 질문했더니 혈액원 직원이 70번 정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리포터가 승진을 위해서 한 것인지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헌혈한다는 남자 대학생이 누워서 헌혈할 때 인터뷰를 하는데 “왜 헌혈을 이제 하게 됐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대학을 졸업하려면 봉사 시간이 필요한데 헌혈이 제일 간편한 것 같아서 헌혈을 합니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혈액원 직원분께서 “리포터 분도 같이 헌혈을 한번 하시죠”라고 했더니 “제가 오늘 공복..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고 ”초코파이 드릴게요“ 하면서 인터뷰를 주고받습니다. 헌혈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헌혈 증서, 약간의 간식 그리고 봉사 시간이 제공되는 게 현실인데 인터뷰 내용에서 정보와 혜택을 구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고 포장이 됐는데 뒤에는 너무 가볍게 포장이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증서와 봉사 시간, 간식이 제공된다는 부분들은 스튜디오에 있는 진행자의 멘트나 자막으로 보여 줬으면 더 유하게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축제와 행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방송에서 많이 비춰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옥 위원장

최승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현옥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현옥 위원

9월 25일 해미 읍성과 한우 목장길 그리고 버드랜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해미읍성 축제가 열리는 걸 알게 됐고, 관광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유익했고 그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앵커 뒤에 있는 LED 월의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행하는 아나운서는 정확하고 깔끔하게 보이는데 뒤에 보이는 영상이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멀티비전의 기능이 노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면 더 깔끔하고 좋은 뉴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은숙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은숙 위원

8월부터 살펴보면 문화 관광쪽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분야들을 봤는데요. <시시각각>에서 관광이나 문화유산 분야들을 계속 다뤘더라고요. ‘충청이 관광 중심지가 되려면’ 과 ‘오구라 수집품을 환수위 가동’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관광 중심지가 되려면’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관광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관광 수요, 콘텐츠 개발, 축제에 대한 지역 현안과 대안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어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런데 충남하고 대전에 관광의 트렌드나 현황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8월, 9월 시기에 뉴스나 토론에서 ‘0시 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더라고요. ‘0시 축제’가 3년 차 진행되면서 찬반 논란도 많고, 내년도에도 이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시민들의 물음들도 많고 관심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전히 많이 다뤄지지 못하고 <시시각각>에서도 토론회 말미에 조금 다루는 정도여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0

시 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도는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제안들을 드립니다.

'오구라 수집 문화재 환수위' 부분들을 토론 주제로 다뤘는데 광복 80년 즈음에서 '오구라 다케노스케'의 약탈 문화유산들을 다뤄서 관심 있게 보았고, 내용도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도 돼서 정보면에서도 좋았습니다. 근데 '문화재'라는 명칭을 여전히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국가유산청으로 바뀌고 '문화재'라고 하지 않고 '문화유산'이라는 명칭들로 바꿔 써야 되는데 환수위 자체가 문화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쓰는 것이기는 한데 자막에서는 명확하게 '문화유산'이라는 명칭으로 전환해서 썼으면 합니다.

'오구라 수집 문화재'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도굴이나 장물이어서 토론회 내용 중에서는 '약탈'이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수집'과 '약탈'을 계속 혼용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토론을 보면서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진행자가 정리를 해 줄 필요도 있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오구라 컬렉션 자체는 대구를 중심으로 반출된 문화유산인데 충남에도 한 600여 점 이상 반출됐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더 관심 있게 다루고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도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오구라 컬렉션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형태여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시각각>이 다뤄왔던 내용들을 스크린을 해보니까 올해는 선거도 있고, 탄핵도 있다 보니 대부분 탄핵과 정치 관련 이슈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전체 한 38회 정도 올라와 있는 것 중에 반 정도가 거의 선거와 정치 관련 이슈들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대전MBC 방송지표가 '지역이 여는 미래 대전MBC와 함께'라고 되어 있고 '지역 중심 공동체, 지역의 가치,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방송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오늘M> 등 프로그램에서 지역들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시시각각>이 다뤄줘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역과 관련된 논점들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선거 이슈들로 인해서 그런 내용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폭넓게 다양한 지역 이슈들이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오늘M>에서 '대전 갑천 생태호수공원'을 다뤘는데요. 9월 27일 개장인데 그 전에 다루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시민 참여 숲이라든지 생태호수공원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월평공원이나 갑천과 연계해서 여러 논란들을 겪었는데 그래도 개장하면서 대전MBC가 미리 세세하게 <오늘M>에서 다뤄주셔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개장에 맞춰서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과 정보 차원에서 좋았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선혜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문선혜 위원

저는 TV보다는 라디오를 듣는 시간이 더 많은 편인데요. 아침에 FM모닝쇼에서 61주년 창사 특집 환갑잔치를 하셨는데 그렇게 아기자기한 코너가 있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오지랴 보건설>이 끝나고 후속으로 제작된 <애들은 가라 1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확실히 기금을 받아서 특별히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은 대전MBC에서 힘을 잘 줘서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잘 만들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획 의도도 좋더라고요. 세대 격차를 줄이는 데 굉장히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안면도에 계시는 해녀 분들과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태안에 해녀가 있는 건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역 특색도 잘 살리고 흥미도 유발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는 주로 다시보기를 이용하는데 대전MBC 홈페이지에 <애들은 가라 1호점>이 링크가 아직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강희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백강희 위원

저는 뉴스를 볼 때 가끔 음소거를 하고 화면만 보기도 하고, 앵커 분의 모습과 뉴스를 같이 보는데요. 최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도 발생했고, 어르신 고독사 문제를 다루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달하시는 앵커분의 표정이 사안과 결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활짝 웃으면서 전하실 수는 없겠지만 사안의 중대함과 표정의 메시지가 어울리면 좋겠는데 화재나 고독사 같은 사회적인 중요한 현안을 던지실 때 미소를 띠고 전달하시는 것 같아서 비전문가 입장으로서 잘못 느꼈을 수도 있었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조금 반감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달하시는 보도의 중대함과 표정이 어울리지 않아서 조금 어색했다는 점만 짚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성일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정성일 위원

이번 달에도 고 김충현 노동자 연속보도가 좋은 보도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질을 쫓는 취재였기 때문에 수상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대전MBC가 노동자 산업재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부 차원에서 레드존을 지정하고 특별 점검에 나서는 부분이 언론의 힘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도를 보니 어김없이 도로 포장 중에 노동자가 사망을 하고, 교회 신축 공사장에서도 또 사망하고, 콘크리트 공장 노동자들도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주시는 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재 사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취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천담 관련 보도도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팩트 체크>로도 두 편 나갔었죠. <팩트 체크>로 나가기가 부담스럽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최대한 내용을 잘 담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독립기념관 관장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매일 같이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감사가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 또 다른 이슈가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일인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고 문제가 있었을 때도 바로 보도를 했고, 또 그 보도에 대한 결과인지 바로 학교에서는 변화를 보이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게 언론의 힘인 것 같아서 그런 힘을 선한 곳에 잘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코리안 드림, 수해로 전기 요금 230만원 보도 같은 경우는 보기에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이주 여성의 신분증을 사용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전과자가 되어 있고 귀화를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전기가 지하로 빠져나가면서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금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 충남 지역에서 지방의원 성추행 문제가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 등 여러 곳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전은 제명 부결되면서 시민들의 반발도 크고, 의회에서 말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송활섭 의원이 국힘을 탈당했음에도 대구 지역에서 당 행사에 참여한 모습을 보도한 부분을 봤었는데, 윤소영 기자가 예전부터 잠입해서 취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전 교도소 재수사 문제도 대전MBC에서 처음 단독 보도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카이스트 석학의 중국 대학 이적 문제가 보도된 적이 있죠. 국부 유출 중에 하나로 중대한 문제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단순히 제도적

관점이 아니라 더 깊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20년 전에도 첨단 기술 유출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공계 인재들의 이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결국은 통과가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름만으로는 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면에서는 이공 인재들이 기업을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공계 인재를 국내에서 계속 붙잡아두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더 우선적인데 단순히 인재가 유출된다는 문제만을 바라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도 R&D 예산 삭감으로 중국이나 유럽으로 연구지를 옮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간 사람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국가 정책의 잘못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취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지랴 보건실> 마지막확인 청양 정산중학교 편을 재미있게 봤거든요. 저도 그런 학교 다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촌향도가 여전한 시대에 그런 시골 학교의 좋은 모습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고요.

<인생 내컷> 청춘학교 전성하 교장 편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선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그 단체의 후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선한 활동을 하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단체나 사람들에 대한 취재가 계속 이어지면 우리 사회에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섬교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섬교 위원

대전MBC가 창사 61주년을 맞아 예전에 보도했던 걸 다시 기획해서 보도한 걸 보고 잊어버렸던 좋은 기사를 떠올리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정성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속성이라는 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대전MBC가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노동자의 사건들에 대한 피드백 차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취재 보도를 마무리까지 하는 과정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역 방송에서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애들은 가라>를 집중적으로 모니터 했는데요. 제목 자체가 저에게 와 닿았어요. 앞전에 <오지랴 보건실>이 청소년을 포커스로 맞췄다면 <애들은 가라>는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데 노인분들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최고령화 사회입니다. 근데 그 기점에서 어른들에 포커스를 맞춰 어른들의 문화 애환, 아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팝업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게 재미있었어요.

팝업이란 자체를 어른들과 매칭시키기가 힘들텐데 유쾌한 MC 김민경님께서 진행을 하시고, 팝업이라는 것들이 기간을 정해 임대 매장에서 브랜드나 상품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체험을 한다는 것들도 자세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시니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조금 뒤에 물러나 계시는 어른들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태안에 해녀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녀가 네 분이 있고 그 해녀 분들을 위한 팝업 매장을 다음회에 하기 위한 접근방식도 좋았고요. 해녀라는 일이 저승에서 번 돈을 이승에서 쓴다고 할 만큼 힘든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일을 하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른들이 힘들게 사는 사회 소외 계층이 아니라 경제 활동 부분으로 유쾌하게 전해져서 재미있게 봤고 감명 받았습니다.

신야리가 간척지 바다를 메워서 만들었다는 것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주가 아니라 서해안 태안에도 이런 생물들이 있다는 것이 나와서 좋았고, 우리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대전 시민으로서 즐거웠습니다. 또 이분들이 해녀일은 5, 6월만 하시고만 나머지는 농사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젊은 층에게 어른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나 새로운 접근법에 있어서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청자로서 최고령 사회에 저희가 함께 가는 세대와 저희 아이들도 같이 보면서 'MZ', '팝업' 이런 단어들이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난 다시 태어나도 해녀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는 직업을 계속 바꾸고 바뀌는 변화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애들은 가라> 재미있게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토론프로그램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좋은 분을 토론자로 모시면 좋을 것 같고, 토론 프로그램은 결국 출연자를 어떻게 섭외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나오던 사람보다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의견을 가진 분들을 잘 모셔서 좋은 TV토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윤미 취재편집부장

프로그램과 뉴스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승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생률, 인구 동향, 차례상 관련 보도는, 기사가 길게 나가는 리포트 뉴스가 있고 짧게 30초 내외로 나가는 단신 뉴스가 있는데 그 보도가 모두 단신 뉴스였습니다. 그날그날 발표되는 내용을 가지고 리포트로 소화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단신 기사를 내보내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될 것인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하면 더 좋겠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팩트 체크> 뉴스 등을 통해서 실제로 세종시 같은 경우에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구 50만을 목표로 만든 도시가 왜 40만 정도 되는 인구를 달성한 이후에 상승세가 꺾이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대전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추세가 있다면 대전의 어떤 인구 정책들의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때 봐주시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 앵커 뒷배경의 LED판 해상도가 떨어져서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 중입니다. 개선에는 항상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고려해서 현재는 우선적으로 조명을 교체해서 1차적인 개선을 한 상태고요. 배경에 나오는 영상들도 최근 기술국 직원이 야경 등을 예쁘게 찍어서 영상을 교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요즘 워낙 화질이 좋고 큰 크기의 텔레비전으로 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거칠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시각각>은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는 탄핵과 비상계엄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와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가급적이면 경제나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선택해서 <시시각각> 토론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정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일 위원님 칭찬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 분야 관련해서는 MBC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타사 기자들도 하기도 하는데요. 노동, 산재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MBC가 가지고 있는 취재 노하우들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취재해서 최근 방송기자연합회에서도 한차례 상을 받았고요. MBC 노조에서도 내부적으로 상을 줄 만한 보도라고 선정돼서 상을 받았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예정입니다.

지천담과 독립기념관 부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는 완벽한 매듭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시청자들이 끄덕끄덕할 수 있는 정도의 매듭이 지어질 때 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소영 기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칭찬을 하고 있는데 더 격려해서 더 좋은 아이টে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석학의 중국 이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사를 처리할 때 가장 큰 시사점이 국내에 머물면서 계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시각각>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보도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 헌혈버스에서 리포터가 현장의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말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지만 그 경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가볍지 않게 진중할 때는 진중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습니다.

<애들은 가라 1호점>이 유튜브에는 올라와 있는 걸 확인했는데 대전MBC 홈페이지에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것은 전산실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표정 관련해서는 해당 아나운서가 실제로 많이 웃는 편이라 무거운 주제일 때도 표정이 밝다는 모니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표정이 어두워질까 걱정도 되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표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섬교 위원님께서 <애들은 가라 1호점>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기획안부터 태안의 해녀 마을 어르신들과 화재가 났던 서천 특화시장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뭔가 어르신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걸 하려다 보니까 바다 물질을 오래 하셨던 해녀 분들과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봤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태안이 6편, 서천이 6편 총 12부작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비가 2억 3천만 원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MC나 촬영에 고급스럽게 힘을 많이 들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진흥협회와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원받아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1회가 방송 됐고, 아마 4, 5, 6회에서는 어르신들, MC, 도와주는 개그맨들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오나미씨, 김재민씨, 김민기씨 모두 올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어르신들에 대한 감동의 드라마가 방송될 것 같은데요. 방송시간은 목요일 밤 9시고요. 유튜브로도 볼 수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지랴 보건실>은 청양 정산중학교를 끝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교육청에서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와서 내년에도 제작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위원님들이 워낙 열심히 준비해 오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대전MBC 쪽에서도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오늘도 시청자위원회가 보람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재 사장

한 달에 한 번 뵙지만 항상 저희를 다시 한 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긴장해서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게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이 저희 프로그램과 회사에 보여주신 열정이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

신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상으로 9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치겠습니다.